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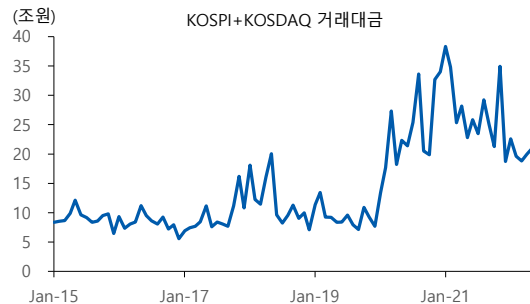


수급주체의 부재, 대안으로 제시된 자사주

1. 매수 주체가 없으면, 스스로 매수한다

- 매크로 지표의 변곡점이 확인되며 증시 반등이 임박한 것으로 보였지만, 물가에 대한 우려로 증시는 다시 하락
- 수급을 이끌어갈 주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 스스로가 수급 주체로 부각되고 있음
- 최근 3년내 시총 1조 이상 기업이 지분율 2% 이상의 자사주를 매입한 23건의 공시 중 14건의 경우 자사주 매입 기간동안 증시를 Outperform하는 주가 수익률 기록

아직은 반등이 보이지 않는 수급주체들의 움직임. 거래대금 감소, 기관/외국인 누적 순매도 증가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왜 자사주를 매입하는가?

- 결국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유는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
- 자사주를 매입한 기업이 소각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주가의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음
- KOSPI는 연초대비 -16.3% 하락. 22년 지분율 2% 이상의 자사주를 선제적으로 매입했으며, 현재 증시 대비 언더퍼폼하고 있는 14개 기업 Screening - 향후 주가 회복을 기대해볼 수 있음

22년 2% 이상의 자사주를 매입한 기업 중 연초 이후 증시 대비 Underperform 중인 종목

코드	종목	상장시장	매입지분%	유입주가(원)			동기간 증시수익률(%)	초과수익률 (%)
				연초	6/14일	수익률(%)		
A042420	네오위즈홀딩스	KOSDAQ	2.2	96,300	31,000	-67.8	-20.3	-47.5
A347770	웹스	KOSDAQ	2.6	28,800	16,300	-43.4	-20.3	-23.1
A138040	메리츠금융지주	KOSPI	2.2	44,000	28,000	-36.4	-16.3	-20.1
A137310	에스디바이오센서	KOSPI	2.1	55,900	38,400	-31.3	-16.3	-15.0
A021080	에이티생명보험	KOSDAQ	2.1	5,310	3,510	-33.9	-20.3	-13.5
A332570	원익폼	KOSDAQ	5.3	7,190	4,760	-33.8	-20.3	-13.4
A139480	이마트	KOSPI	3.6	151,000	107,000	-29.1	-16.3	-12.9
A950190	리투켄	KOSDAQ	3.7	23,450	15,800	-32.6	-20.3	-12.3
A039570	HDC필스	KOSPI	3.7	12,200	8,900	-27.0	-16.3	-10.8
A009240	한샘	KOSPI	3.3	92,600	71,200	-23.1	-16.3	-6.8
A064850	에프앤가이드	KOSDAQ	2.6	10,250	7,630	-25.6	-20.3	-5.2
A082310	엘모티베룸	KOSDAQ	2.0	17,200	13,000	-24.4	-20.3	-4.1
A039490	카카오증권	KOSPI	2.3	107,000	88,000	-17.8	-16.3	-1.5
A041930	동아화성	KOSDAQ	2.2	12,100	9,550	-21.1	-20.3	-0.7

자료: DataGuide, KIND,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매입 지분은 공시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며, 매입은 직접취득과 신탁계약을 포함

1. 매수 주체가 없으면, 스스로 매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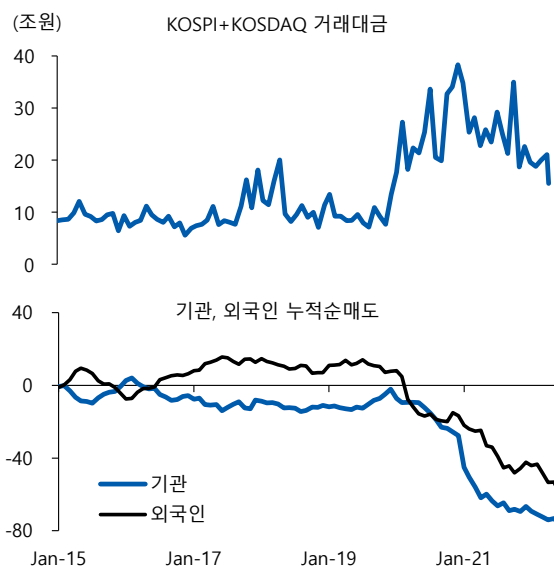
환율, 금리 등 여러 매크로 지표의 변곡점이 확인되며 증시 반등이 임박한 것으로 보였지만, 최근 물가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며 증시는 다시 하락했다. 수급 상황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수급을 이끌어갈 주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 스스로가 대안적인 수급 주체로 부각되고 있다. 즉, 현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을 선택한 기업에 대한 매력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코로나19의 영향력이 가장 컸던 2020년 자사주 매입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주가 하락에 대하여 기업이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주가 방어에 대한 의지와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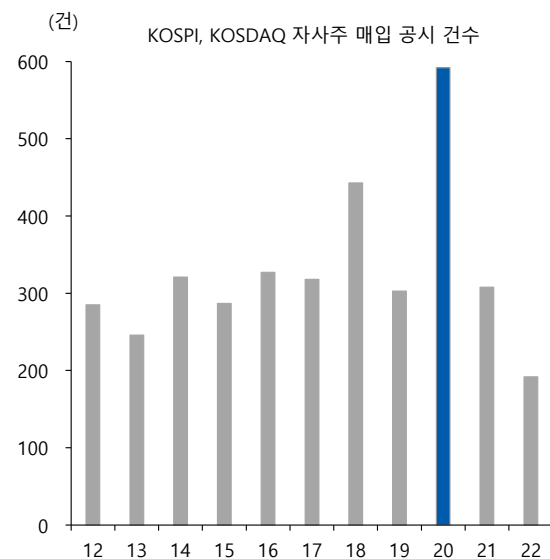
이렇듯, 자사주 매입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Signal로 판단된다. 실제로 최근 3년내 시가총액 1조 이상인 17개 기업이 2% 이상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정한 23건의 공시에서, 이중 14건의 경우 공시된 자사주 매입 기간동안 증시를 Outperform하는 주가수익률을 기록했다.

[차트1] 아직은 반등이 보이지 않는 수급주체들의 움직임
거래대금 감소, 기관/외국인 누적 순매도 증가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큰 폭의 증시 하락을 경험했던 코로나19 기간을
자사주 매입의 기회로 활용한 기업



자료: KIND,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왜 자사주를 매입하는가?

결국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유는 미래의 주가 방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 기업은 또 하나의 투자자가 되어 자사의 주가 하락을 인식함과 동시에 반등 가능성 및 매수 매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과 같다.

자사주를 매입한 기업이 이를 소각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주가의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다. 자사주를 소각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소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6/14일 KOSPI는 연초대비 -16.3% 하락하며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기업은 하반기 증시 반등 시점과 함께 주가의 회복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22년 지분율 2% 이상의 자사주를 매입한 기업 중, 증시 대비 Underperform 중인 종목을 [차트3]에 정리했다.

특히, 6/13일 메리츠금융지주는 약 500억원의 자사주 소각을 공시했다(소각 예정일 6/23일). 증시가 재차 하락하는 과정에서 주가 방어에 대한 의지와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 만큼, 향후 주가 추이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차트3] 22년 2% 이상의 자사주를 매입한 기업 중 연초 이후 증시 대비 Underperform 중인 종목

코드	종목	상장시장	매입지분(%)	수정주가(원)			동기간 증시수익률(%)	초과수익률 (%p)
				연초	6/14일	수익률(%)		
A042420	네오위즈홀딩스	KOSDAQ	2.2	96,300	31,000	-67.8	-20.3	-47.5
A347770	핀스	KOSDAQ	2.6	28,800	16,300	-43.4	-20.3	-23.1
A138040	메리츠금융지주	KOSPI	2.2	44,000	28,000	-36.4	-16.3	-20.1
A137310	에스디바이오센서	KOSPI	2.1	55,900	38,400	-31.3	-16.3	-15.0
A021080	에이티엔임베스트	KOSDAQ	2.1	5,310	3,510	-33.9	-20.3	-13.5
A332570	와이팜	KOSDAQ	5.3	7,190	4,760	-33.8	-20.3	-13.4
A139480	이마트	KOSPI	3.6	151,000	107,000	-29.1	-16.3	-12.9
A950190	미투젠	KOSDAQ	3.7	23,450	15,800	-32.6	-20.3	-12.3
A039570	HDC랩스	KOSPI	3.7	12,200	8,900	-27.0	-16.3	-10.8
A009240	한샘	KOSPI	3.3	92,600	71,200	-23.1	-16.3	-6.8
A064850	에프앤가이드	KOSDAQ	2.6	10,250	7,630	-25.6	-20.3	-5.2
A083310	엘오티베콤	KOSDAQ	2.0	17,200	13,000	-24.4	-20.3	-4.1
A039490	키움증권	KOSPI	2.3	28,200	22,850	-17.8	-16.3	-1.5
A041930	동아화성	KOSDAQ	2.2	107,000	88,000	-21.1	-20.3	-0.7

자료: DataGuide, KIND,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매입 지분은 공시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며, 매입은 직접취득과 신탁계약을 포함